

검역 단계의 감염병,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위험 유입에 선제적 대비하기 위한 연간훈련계획 배포

-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'23년 하반기 시범 진행 후 '24년부터 권역별 「검역단계 감염병 대응훈련」 본격 추진
- 신종감염병을 넘어선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위험의 해외유입을 대비한 국립검역소의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
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은 검역단계의 해외 유입 신종·재출현감염병 등 공중보건위험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「2024년 검역단계 감염병 대응훈련」 실시계획을 발표하였다.

「2024년 검역단계 감염병 대응훈련」은 질병관리청 주관 하에 권역별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(AI),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등 감염병 의사환자의 최초 유입상황을 가정하여 ①감염병 교육, ②입국검역, 유증상자 조사, 의사환자 이송 등의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, ③토론훈련이 이뤄진다.

본 훈련은 '23년에 시범적으로 권역별 검역단계 훈련으로 연 1회 이상 시행하였으며,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상·하반기로 나뉘어 연 2회(반기별 1회) 이상 본격 실시된다.

특히, 올해 훈련부터는 '23년 12월 세계보건기구(WHO)가 발표했던 남아프리카 잠비아 내 대규모 탄저병 사람감염 의심사례, '23년 7월 국내에서도 해외배송 우편물 등 생물테러 의심사례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생물테러 위험물질 유입에 대비한 권역별 검역단계 대응훈련도 실시한다.

* (생물테러감염병) 탄저, 보툴리눔독소증, 페스트, 마버그열, 에볼라바이러스병, 라싸열, 두창, 야토병(「감염병예방법」 제2조)

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“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기로 경험했던 사회적·경제적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현장의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감염병 유입 시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면서,

“해외에서 유입가능한 위험이 다변화되는 점을 반영하여 생물테러 대비훈련을 시작으로 해외여행자의 출입국, 운송수단의 입출항, 화물의 수출입 등 전 과정에서 유입 가능한 인체위해 요인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국립검역소의 현장대응역량을 확보해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붙임> 「2024년 검역단계 감염병 대응훈련」 실시계획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<총괄> |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신재귀 (043-719-920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진욱 (043-719-9218) |
| | | | 주무관 | 이데보라 (043-719-9211) |

□ **추진배경**

- 신종 및 해외감염병 유입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발생가능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인 현장훈련을 통한 상시 대비 필요
- ※ 「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(‘23~’27)」 3-1-4. 공항만 해외감염병 대비 훈련계획 마련 및 훈련

□ **훈련 개요**

- (목적) 검역단계 감염병 유입 시 대응 인력의 실전 역량을 향상하고, 모의훈련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
- (기간) 권역별로 (상반기) '24.3. ~ '24.6., (하반기) '24.7. ~ '24.10. 나뉘어 반기 1회 실시
- (장소) 권역 단위 훈련 시 접근성이 좋고, 훈련 실시에 적합한 검역소에서 시행(개별 단위 진행 시 각 검역소에서 시행)
- (기본방향) 각 국립검역소 훈련 실시 및 권역별질병대응센터 지원하며,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훈련 효과 제고
 - 검역단계 감염병 유입 및 발생 시 신속·정확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
 - 초동대응기관별 대응 절차 및 역할 숙지·명확화
 - 초동대응기관·권역 내 관계기관의 연락망 최신화 및 공조체계 강화
 - 현행 검역단계 감염병 대응 개선사항 도출

□ **향후계획**

- 권역별 국립검역소 훈련일정 확정 및 상·하반기 훈련 실시